

Arthur P. Molella, Scott Gabriel Knowles eds., *World's Fair in the Cold War*,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2019. 328 pp.

김하정†

냉전(Cold War)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다.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동반하지 않은 채 이뤄진 체제 경쟁을 뜻하는 냉전의 핵심에는 과학기술이 있었다. 냉전기 과학기술은 핵무기 개발 경쟁은 물론, 스푸트니크 발사로 촉발된 우주 경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과학사학자들은 달 탐험 경쟁, 핵무기 개발이라는 구체적인 기술 경쟁을 보다 더 넓은 냉전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냉전기 미국 과학기술사 연구자 오드라 울프(Audra J. Wolfe)는 “과학적 기획이 국민국가의 유지에 중심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냉전기 과학기술의 특징을 찾았다. 울프는 제3세계를 대상으로 한 개발프로젝트나 공공복지사업과 같이 과학기술이 사회문화적 방식으로 국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활용된 모습을 통해, 국민국가의 건설과 이데올로기 경쟁에서도 과학기술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¹

이렇듯 냉전과 과학기술 사이의 관계는 구체적인 과학기술 개발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당대의 더 넓은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이뤄진 사업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때, 세계 각국이 저마다의 국가적 성과를 전시하는 장인 세계박람회(World's Fair)²는 냉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 대상이

† 서울대학교, hajeong.kim@snu.ac.kr

1 오드라 J. 울프, 김명진·이종민 역, 『냉전의 과학』, (궁리, 2017), 9. [Audra J. Wolfe, *Competing with the Soviets: Science, Technology, and the State in Cold War America*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3)].

2 박람회는 “국가 또는 지역의 문화나 산업의 실태를 소개하기 위해 각종 사물이나 상품을 진열해 놓은 곳”으로 정의되며 다른 국가가 참여하는 경우 이를 국제박람회나 세계박람회로 부른다. 오늘날의 국제 규모 박람회는 주로 국제박람회기구(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BIE)에 의해 주관되며 World's Fair, International Exhibitions, Worlds Expositions 등의 표현이 함께 사용된다. 이 책은 BIE의 공인을 받은 세계박람회를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본 서평에서는 유사한 표현을 모두 ‘세계박람회’로 번역했

될 수 있다. 특히 세계박람회의 과학기술 전시는 국가 표상과 과학기술 성과 사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각 국가들이 상정하는 발전 경로 속 과학기술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World's Fair in the Cold War* (2019)는 냉전기를 세계박람회라는 창을 통해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 냉전기 와 그 이후에 열린 세계박람회의 과학기술, 음식, 종교, 젠더, 미디어, 공공외교 등 다양한 측면에 주목한 글 16편을 수록하고 있다. 편집자인 스미소니언 르멜르센터장 아서 모렐라(Arthur P. Molella)와 과학기술학자 스콧 놀즈(Scott Gabriel Knowles)는 서론에서 냉전이 세계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쿠바 미사일 사태나 베를린 장벽과 같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존재했던 현상으로 여겨짐을 비판한다. 이들은 오히려 세계박람회가 즉각성(immediacy)의 감각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우리를 그 시대로 데려다주는 훌륭한 타임캡슐이 되어줄 수 있다고 보았다(3).

냉전기 세계박람회의 다양한 측면에 주목한다는 목적 아래 책은 시간 순서대로 냉전기 최초의 공인 세계박람회인 브뤼셀 박람회를 다룬 1부, 1960년대 북미 대륙에서 열린 세계박람회를 다룬 2부와 그 문화적 측면에 주목한 3부, 아시아와 호주의 박람회를 다룬 4부, 냉전기 이후의 세계박람회를 다루는 5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서평에서는 수록된 글들을 묶을 수 있는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 책의 내용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우선 박람회 전시물에 대한 묘사를 통해 냉전기 미국과 소련 사이 체제 갈등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1958년에 열린 브뤼셀 박람회의 소련과 미국 전시관을 분석한 2장에서는 소련관의 전시가 과학기술적 성과를 내세운 전시였다는 점을 미국관의 전시와 대비해 서술한다. 소련관의 전시 기획자들은 박람회가 잠재적으로 체제 경쟁의 장이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전시가 일종의 “볼셰비키 전투(Bolshevik battle)”여야 한다고 생각했다(30). 여기에 박람회 개최 6개월 전에 비밀리에 추진되던 스푸트니크 발사가 성공하면서 소련 과학기술의 첨단 성과로서 스푸트니크 모형이나 로켓 기술, 라이카 모형 등이 전시관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31). 이처럼 소련관의 절반 이상은 과학기술과 제조업의 성과를 자랑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었다(37).

다. “박람회(博覽會)”,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0660> (2021. 4. 12. 접속). BIE에 대한 소개는 다음을 참고. <https://www.bie-paris.org/site/en/who-we-are> (2021. 4. 20. 접속).

미국 역시도 박람회장을 적극적인 홍보의 장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전시관을 기획하고 건설하는 데에는 미국공보처(USIA,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공보처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유럽인들이 미국에 대해 물질주의적 삶의 태도가 팽배하고, 문화가 부재한 곳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적인 삶의 모습과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데 전시의 초점을 맞췄다(32). 이러한 구상은 ‘미국의 얼굴(The Face of America)’ 전시의 포드사의 모델 T, 에디슨의 전구 등의 다소 오래된 과학기술 성과나 카우보이 부츠 같은 상징적 전시물로, 전시관 2층의 ‘생활의 섬(Island of Living)’의 가구, 가전제품, 주방 도구를 통해 ‘미국적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33).

과학기술 성과를 강조한 소련과 미국적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치중한 미국 전시관의 차이는 이후 박람회에서의 미국관 전시 기조에 영향을 끼쳤다. USIA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나 박람회 폐막 이후 평가에서 미국관은 건축물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첨단 과학기술 성과 전시는 소련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43). 소련에 비해 과학기술에서도, 박람회에서도 뒤처졌다는 미국의 자기 인식은 이후 우주 경쟁에서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박람회 전시물로 만들어내는 데에 영향을 끼친다. 이처럼 냉전 시기의 박람회는 현재의 구체적인 과학기술 성과를 중심으로 국가 간의 경쟁 구도가 조성되고 여러 전시관을 둘러본 관람객들의 반응이나 언론사의 평가로 그것이 가시화되는 장소였다.

또한 박람회는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소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냉전기 박람회에서는 원자력 기술이 가져다 줄 유토피아적 미래상을 강조하고 제시하는 전시가 많았는데, 1장에서는 브뤼셀 박람회의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인 아토미움(Atomium)이 원자력과 평화를 연결 짓는 상징물로 여겨졌다고 소개한다(11). 아토미움은 원자를 상징하는 아홉 개의 스테인리스 구체가 서로 연결된 구조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 네 개에는 유럽 각 국가의 원자력 활용 방안에 대한 전시가 기획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영국과 프랑스는 각자의 원자력 발전소 모델을, 벨기에에는 콩고에서 생산되는 우라늄을, 독일은 원자로 건설에 사용되는 철강을 내세우며 자신들이 앞으로의 원자력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관람객들은 아토미움에서 “유럽, 유럽의 산업, 그리고 원자력 기술의 경이로움”을 한 장소에서 체험할 수 있었다(17).

원자력기술은 1970년에 열린 오사가 박람회에서조차도 궁극적으로 긍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려졌다. 개최국인 일본은 원자폭탄으로 인해 패전했지만 결국 전후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는 점을 자축하며, 앞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메시지를 원자력 전시물에 담았다. 일본관의 네 번째 전시실에는 원자폭탄으로 인한 피해를 보여주는 건물(Tower of Sorrow)과 앞으로의 평화적 이용을 약속하는 건물(Tower of Atoms)이 함께 구성되어 지금까지의 슬픔을 딛고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으며(51) 후지제빵이 건설한 전시관에서는 ‘우주소녀 아톰’이 등장해 원자력이 자연스럽고, 일상을 구성하는 친근한 에너지임을 설명했다(52).

냉전기 박람회의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적 상상과 이를 구체화한 전시물에 모든 사람들이 항상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8장에서 아서 모델라는 1964-65년에 열린 뉴욕 박람회의 IBM관과 바티칸관의 피에타 전시에 대한 관람객들의 반응을 비교함으로써 대중이 이상화된 과학기술에 느꼈던 거리감을 묘사한다. 대중은 같은 박람회장 내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사의 퓨처라마(Futurama)관 등에서 첨단 과학기술로 작동하는 미래 도시의 모습에 열광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직접 기술을 다루는 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IBM관에 전시된 첨단 컴퓨터 전시물은 컴퓨터를 직접 작동하고 이를 활용해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기획되었는데, 관람객들은 이를 사용하기보다 안내 부스의 직원에게 직접 물음을 청하는 것을 택했다(103). 같은 회장 바티칸관의 피에타 전시가 인간 중심적인 삶과 영적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는 점이나 목사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의 전시관도 박람회장 한켠에 자리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냉전기의 세계박람회는 과학기술이 약속하는 미래만을 체험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가치에 대한 지향이 반영된 장소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냉전기 박람회는 당시 국제 관계의 지형과 앞으로의 지향을 보여주는 장소로도 큰 의미를 가졌다. 앞서 보았듯 미국이나 소련은 체제 경쟁의 도구로 박람회 전시관을 활용했다. 반면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은 전시관을 통해 정치적 통합에 대한 제안이나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제안하는 장소로 박람회를 활용했다. 예를 들어 브뤼셀 박람회에서는 통합 유럽 정부를 위한 첫 단계로 등장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전시관이 건설되었는데, 개최국 벨기에는 서유럽 국가들이 나아가야 할 통합의 길에서 개최지인 브뤼셀이 그 중심

에 있어야 함을 주장했다. ECSC 전시관은 박람회에 방문한 유럽인 대상의 교육의 장소로 활용되었다(14). 이렇게 유럽의 자유 진영에서 통합의 메시지가 만들어지고 전파되었다면, 2차 대전 이후 새로이 독립한 국가들은 전시관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다. 1970년 오사카 엑스포의 싱가포르관을 분석한 13장은 냉전기에도 여전히 “뜨거운(hot)” 지역으로 남아있던 인도차이나반도의 신생 독립국이 박람회를 통해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162). 싱가포르관은 다인종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식물들이 한자리에 있는 ‘정원’을 주제로 삼은 전시관을 기획했고 이를 말레이시아와의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아시아의 관문으로, 일본과 서양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관광지로 싱가포르를 위치시키기 위한 전시물들은 싱가포르관이라는 정원을 가꿈과 동시에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만들고자 했던 “정원사들(gardeners)”의 작품이었다(171).

냉전기 세계박람회의 여러 측면에 주목한 글들이 차례로 수록되어있는 이 책은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박람회를 전 지구적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5). 같은 박람회의 서로 다른 국가, 이를테면 브뤼셀 박람회의 미국과 소련 전시관을 비교함으로써 냉전기 국가의 과학기술을 표상이 체제 경쟁의 수사와 연결되는 생생한 사례를 이해할 수 있다. 원자력이라는 같은 주제로 꾸며진 브뤼셀과 오사카 박람회 전시관 사이 비교를 통해서 각 국가의 미래 지향 속 과학기술의 위치와 발전 방향을 가늠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유럽, 미국, 아시아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열린 박람회들 다룬 글을 차례로 읽으면서 냉전기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유럽에서 북미 대륙으로, 아시아까지 확장되어가는 경향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책은 개별 박람회와 전시관의 기획 맥락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이는 20세기에 열린 박람회 중 최대 관람객을 기록했던 1970년 오사카 박람회를 다룬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오사카 박람회는 브뤼셀과의 원자력 전시 비교(3장)와 싱가포르관(13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분적으로 소개될 뿐, 냉전이 일본 혹은 아시아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세계박람회가 어떤 맥락에서 기획되었고 무엇을 목표로 삼았는지, 박람회의 전시관 구성에는 당시 국제 관계가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냉전 갈등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한편 미국의 박람회, 특히 1964-65년의 뉴욕 박람회에 대한 글이 5장부터 10장까지를 차지하고 있기에 책 전체를 두고 보

았을 때 미국 중심의 서술이라는 인상을 준다.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냉전을 몇몇 장소에서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박람회를 통해 그 생생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국가에서 열린 세계박람회를 소개함으로써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냉전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책에서 다루는 냉전기 세계박람회의 과학기술은 체제 경쟁의 수단으로, 때로는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기술 낙관주의의 구성물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복합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냉전이 끝나고 세계 차원의 무역 체제가 구성된 1990년대와 그 이후의 세계박람회, 그리고 박람회의 과학기술 전시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냉전기와 비슷할까? 혹은 체제 경쟁이 사라짐에 따라 함께 경쟁 구도도 사라졌을까? 책의 마지막 16장에서 저자 스킷 놀즈도 “세계박람회는 여전히 중요한가?(Does the World's fair still matter)?”라는 질문을 던지며 탈냉전기의 박람회를 분석했다. 예를 들어 불가리아 플로브디브의 1985년, 1991년 두 차례 박람회는 동구권에서 벗어난 불가리아의 미래 지향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1992년 세비야 박람회와 1998년 리스본 박람회는 낙후된 도시를 개발하는 도시 재생의 차원에서 시도되어 유럽 통합이라는 아젠다를 제안하는 행사였다. 1993년 대전과 2010년의 상하이 박람회는 새롭게 정의되는 국가 정체성을 전달하기 위한 행사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놀즈는 체제 경쟁이 사라진 탈냉전기에도 세계박람회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하는 듯하다.

놀즈의 분석처럼 탈냉전기에도 세계박람회는 국가마다 지향하는 가치와 열망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195). 특히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지역에서 열린 박람회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은 새롭게 재편된 국제 질서를 가늠하거나 냉전기와와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3년 대전에서 열린 세계박람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국가 간 경쟁이 냉전기와 유사한 형태로 과학기술 전시를 통해 드러나며, 오히려 더 다양한 구도로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관의 ‘앰배서더호’와 러시아관의 우주정거장 ‘미르’ 전시물 사이에서 만들어진 경쟁 구도는 냉전기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우주 경쟁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³ 한편 한국 언론에서는 한국의 ‘꿈돌이 로봇’과

3 “대전엑스포 미·러 “기술경쟁””, 『동아일보』, 1993. 7. 23, 27면

일본의 ‘맹도견 로봇’을 비교하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과학기술 경쟁 구도를 만들었는데, 이는 동시대 한국의 과학기술 성장에서 비롯된 ‘한국적 정체성’이 과학기술 전시에 반영된 결과였다.⁴ 이처럼 탈냉전기 세계박람회도 국가 간 과학기술 경쟁의 장으로 이해되었던 측면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 구체적인 양상에 서는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이전과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세계박람회의 특징은 무엇이며, 달라진 지점과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탈냉전기의 세계박람회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어진다면 체제 경쟁 이외의 과학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합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냉전기의 세계박람회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⁵

4 “곰돌이 로봇·맹도견 로봇 한·일 과학자 자존심 대결”, 『경향신문』, 1993. 10. 3, 20면, 대전 세계박람회의 과학기술 전시에 반영된 ‘한국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 김하정, “대전엑스포를 통해 본 1990년대 초반 한국의 과학기술문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0).

5 이 책과 비슷한 시도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열리거나 기획되었던 다섯 개의 세계박람회를 다룬 Robert H. Kargon, Karen Fiss, Morris Fraser Low, Arthur P. Molella eds., *World's Fairs on the Eve of the War*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2015)를 들 수 있다.